

【논문】

天聰年間 흥타이지의 漢人 官員에 대한 회유와 통제\*

정병진\*\*

| 차

례 |

- I. 머리말
- II. 한인 관원에 대한 회유와 우대
- III. '上言'에 대한 흥타이지의 이중성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天聰年間 後金에 투항한 한인 관원에 대한 흥타이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후금의 汗으로 즉위한 이후 누르하치에 의해 외면받았던 漢人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다. 과거 明에서의 지위와 투항한 이후의 공적을 기준으로 관직을 수여하였으며, 예기치 않은 친지의 죽음에 대해 보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 관원과 후금 지배층간 혼인을 통한 滿·漢의 결합도 시도하였다. 이후 孔有德 등이 투항하자 그들만의 별도 조직도 인정해주었으며, 한인 관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八旗의 모습을 본떠 체계적인 관리를 시도하였다.

흥타이지는 한인 관원에 대한 통제도 잊지 않았다. 후금의 한인 관원이 증가하면서 그들은 과거 明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변화의 방책이 담긴 上言上疏를 올렸다. 이에 대해 흥타이지는 국정의 폐단을 개혁하거나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지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明에 대한 무모한 군사행동이나 女眞의 전통과 관습에 대한 비난은 힐책의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한인 관원들이 단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요구하자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

\* 본 논문은 만주학회 2020년 신춘위크숍에서 발표한 「명청교체기 漢官을 통해서 본 滿漢關係」를 대폭 수정·보완한 글이다.

\*\* 강원대 사학 전공 강사.

체를 감사히 여기고 국가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즉, 홍타이지는 북방민족 군주로서 강렬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한인 관원을 상대하였다. 만약 한인 관원이 二等民族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정해진 한계선을 넘으면 홍타이지의 엄중한 경고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북방민족 군주가 유능한 한인 신하의 보좌를 받아 내부의 개혁을 단행하고 문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기존 서사가 최소한 홍타이지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후금(後金), 천총연간(天聰年間), 홍타이지, 만한관계(滿漢關係), 한관(漢官), 이신(貳臣)

## I. 머리말

17세기 초반 女眞의 성장과 後金의 건국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누르하치를 제거하기 위한 明의 시도는 사르후 전투의 패배로 실패하였고, 후금의 군대에 의해 요동 지역마저 상실하면서 체면과 실리를 동시에 잃어버렸다. 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누르하치는 후금의 수도를 요동의 전통적 중심지인 遼陽으로 옮겨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였다.<sup>1</sup>

누르하치는 새로운 백성에게 자신은 북경의 황제와 달리 자애로운 군주임을 강조했다. 수하의 여진인과 한인을 모두 동등하게 대우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점령지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李永芳을 비롯한 명의 관원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도 펼쳐 민심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두 민족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점차 깊어져만 갔다. 결국, 누르하치는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요동 지역의 한인을 대거 학살한 후 근거지를 瀋陽으로 옮겼다. 그가 원했던 후금에 의한 안정적인 요동 지배는 요원한 일로 보였으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sup>2</sup>

1 후금의 요동 공략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두현, 1989, 「清朝 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 中國史』 IV, 지식산업사, 152-154쪽; 노기식, 2004, 「明代 몽골과 만주의 交替」, 『사총』 59, 58-60쪽 참조.

2 누르하치가 시도한 한인 지배정책과 그에 의해 등용된 한인 관원에 대한 분석은 김두

후금의 새로운 한으로 등극한 홍타이지는 각종 위기에 처한 국가의 보전과 자신의 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자신과 권력을 나누어 가진 형제들과의 내부 경쟁에서 승리해 확보한 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다. 동시에 고립된 국제정세 속에서 후금의 존재와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항구적인 존속의 길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후금 내부의 권력체제 개편과 함께 그들의 새로운 기반으로 떠오른 요동 지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sup>3</sup> 마침 후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던 한인 관원과 수재 등은 요동 지역의 한인을 관리해본 경험과 지식이 있었고, 그들이 보유한 각종 정보는 추후 山海關을 넘어 중국 내지를 정복하기 위한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어 다시금 매력적인 존재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자연히 기존 연구에서도 당시 후금에서 활약한 한인 관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먼저 후금을 선택한 한인 관원에 대한 호칭부터 살펴보면 貳臣·漢人·漢官·降將·니칸[Nikan], 니칸 하판(사)[Nikan hafan(sa)] 등 다양하게 불린 모습이 나타난다.<sup>4</sup> 투항한 한인 관원의 수를 정확히 제시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건륭제 시기 편찬된 『貳臣傳』을 기준으로 개별 인물에 대한 분석

현, 1987, 「요동지배기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254-256쪽; 정병진, 2019, 「누르하치 시기 貳臣의 출현과 역할」, 『인문과학연구』 61, 226-227쪽; 박일현, 2020, 「順治 연간의 漢人 貳臣과 '滿漢一家'의 실상」, 『명청사연구』 52, 184쪽 참조.

3 홍타이지 즉위 무렵 후금의 정국에 대한 분석은 송미령, 2008, 「天聰年間(1627-1636年) 支配體制의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중국사학회』 54, 164-167쪽;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에·김선민 옮김,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395-397쪽 참조.

4 後金 또는 淸에 귀순해 복무한 한인 관원에 대한 명칭은 개별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貳臣'이란 명칭은 글자만으로 '두 왕조를 섬긴 신하'라는 뜻을 분명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으나, 후대 건륭제의 지시로 편찬된 『貳臣傳』에서 그 명칭이 차용되었기 때문에 입관 이후 淸朝의 가치판단이 반영되었으며 해당 시기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용어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당시의 한문 사료에서는 그들에 대해 주로 '漢官' 또는 '漢人'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만문 사료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니칸', '니칸 하판(사)로 지칭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당대의 자료와 의미가 통하는 '한인 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그 뜻을 드러내고자 했다.

과 유형별 분류, 그들이 남긴 작품을 통한 심리상태 등을 추정하는 문학적 연구도 진행되었다.<sup>5</sup> 또한, 과거 명과의 儀禮에 능숙했던 그들의 장점을 활용해 조선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가는데 활용한 모습을 눈여겨보기도 했다.<sup>6</sup> 이외에도 후금에 귀순한 한인 관원과 그들이 담당하는 한인이 증가하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八旗漢軍의 조성 시도 및 한인 관원이 제안한 각종 개혁안을 기반으로 중국식 제도가 도입되는 모습 등도 살펴보았다.<sup>7</sup>

위와 같은 入關 前後史에 걸친 대다수 연구는 홍타이지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後金[淸]에서 활약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明清交替라는 거대한 변화를 추동했다고 여긴다. 즉, 당시 후금에서 활약하던 한인 관원의 존재가 변방의 오랑캐에 불과했던 자들을 문명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는 서사가 반복되었다. 다만, 근래에는 ‘新淸史’라 불리는 연구 경향을 바탕으로 기존 ‘漢化’ 이론을 반박하고 당대의 만문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방민족 정보자로서 고유한 전통과 특징 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sup>8</sup> 하지만 滿·漢의 접촉과 갈등, 공존의 모색 등이 처음 시도된 입관 전의 역사보다는 다수의 자료가 남아있는 북경 점거 이후의 역사에 관심이 치중된 아쉬운 점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타이지의 통치 전반부인 天聰年間(1627-1636)으로 시기

5 岡本 さえ, 1976, 「貳臣論」,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8; 최갑순, 1978, 「『貳臣傳』編纂始末과 그 배경」, 『西原大學 論文集』 7; Gertraude Roth, 1979, "The Manchu-Chinese Relationship, 1618-1636", *From Ming to Chi'ng :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6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7 陈曦, 2012, 「“貳臣”建言与清初治政研究」, 辽宁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王秀英, 2012, 「从淸入关前后汉军贵族形成看统治阶级用人之策」, 『北方文物』; 张秀峰, 2013, 「淸入关前汉官群体研究问题」,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辛宽, 2016, 「论淸太宗时期汉官群体的形成与作用」, 辽宁大学 硕士学位论文.

8 ‘新淸史’에 대한 소개와 분석, 이를 둘러싼 논쟁을 국내에서 정리한 내용은 김선민, 2011,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내일을 여는 역사』 45; 김선민, 2013, 「신청사와 만주학」, 『만주연구』 16; 윤욱,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동북아역사논총』 53; 기세찬, 2017, 「신청사 연구사 분석을 통한 담론의 함의」, 『군사연구』 144 등의 논의를 참조.

를 한정해 그의 한인 관원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살펴보려 한다. 이 시기는 약 10여년에 불과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天命’과 ‘崇德’의 중간 지점으로 과거 여진 사회의 관행에 익숙한 국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후금에 닥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누르하치 말년 한인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고 다른 방식을 통해 한인 관원을 적극적으로 회유함과 동시에 통제의 고삐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먼저 누르하치와 같은 절대적 권력자가 아니었던 홍타이지가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는 방편의 하나로 한인 관원을 어떻게 회유하고 우대해나갔는지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후금에 귀순한 한인 관원들이 각종 개혁방안을 담아 제출한 ‘上言’에 대해 보여준 홍타이지의 반응에 주목하려 한다. 그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닌 정치적 선택이 반영된 결정으로 한인 관원에 대한 홍타이지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천총연간에 존재한 내부의 모순과 위협에 적극적으로 맞선 홍타이지가 즉위 초의 위기를 극복하고 大清帝國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을 부분적이거나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인 관원에 대한 회유와 우대

누르하치의 사망과 함께 홍타이지는 후금의 한으로 추대되었다. 그가 즉위한 날의 기록은 이전의 일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하였다. 홍타이지는 새로운 한으로 추대되었지만 홀로 南面하지 못하고 자신의 형제들과 같은 반열에서 즉위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다.<sup>9</sup> 새로운 시대의 첫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예전 누르하치가 확고하게 장악했던 권력 일부만을 장악한 홍타이지의 현실과 고립된 국제정세는 후금의 안정을 위협하였다. 특히 요동 지역에서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발생과 후금의 통치를 거부하고 도주하는 한인들의 증가 추세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

9 『清太宗實錄』卷1, 天命 11年 9月 2日(辛未).

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다.<sup>10</sup>

즉위식을 마친 흥타이지는 위기를 추스르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수많은 군주가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량이 넘치고 포용적인 군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다. 첫 번째 목표는 요동 지역의 한인과 과거 명의 관원으로 복무한 자들이었다. 이들은 후금이 요동 지역을 점거하면서 지배의 대상으로 전략한 자들로 처음에는 적극적인 회유와 초무의 대상이었으나, 누르하치가 추진한 한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핍박받는 신세로 전략한 상태였다.<sup>11</sup>

흥타이지는 ‘治國의 要는 무엇보다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것’이라 선언하면서 그들을 다시 후금의 국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인 관원 중에서 淸正한 자들을 선발해 요동 지역의 한인을 관리하게 하고, 버일러와 암반들의 수하에 있는 자들이 역지를 부리며 한인 관원의 집에서 재물을 강탈하던 짓 등을 모두 금지시켰다.<sup>12</sup> 이와 같은 한인 관원에 대한 유희책은 후금의 요동 지배를 거부하고 탈주하는 한인의 수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명과의 전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전리품으로 간주되었는데, 후금에 복무하는 한인 관원을 통해 이탈을 방지하고 각종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자 했다.<sup>13</sup> 동시에 그간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한인 관원들을 달래면서 후금 내

10 17세기 발생한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나종일, 1982, 「17世紀 危機論과 韓國史」, 『歷史學報』 74·75; 김문기, 2010,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氣候變動」, 『역사와 경계』 77; 김문기, 2014, 「明末淸初의 荒政과 王朝交替」, 『中國史研究』 89; 조영현, 2014, 「17세기 위기론'과 중국의 사회 변화」, 『역사비평』 107 등의 내용을 참조. 후금의 통치를 거부하고 요동 지역을 이탈한 자들(逃人[ukanju])에 대해서는 정병진, 2012, 「入關前 淸의 朝鮮에 대한 '三色人' 刷還要求」, 『明清史研究』 38; Meng Heng Lee, 2018, "Ukanju and the Changing Political Order of Northeastern Asia in the 17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3-1 등 참조.

11 정병진, 2019, 앞의 논문, 233-235쪽.

12 『淸太宗實錄』 卷1, 天命 11年 9月 2日(辛未)·9月 8日(丁丑).

13 누르하치가 만들어낸 팔기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암반[amban]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전쟁에서 노획한 포로·가축·물자 등을 일컫는 올지[olji]에 대한 욕망은 강렬했기에, 자신이 후금에 기여한 만큼의 배당을 요구하였고 누르하치 역시 이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공적을 요구하고 있었다. 흥타이지 시기에도 다소

부의 권력다툼에서 자신을 따르는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계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홍타이지는 외부의 압력에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명과의 전쟁이 계속 되는 가운데 자신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선을 맞대고 있는 명의 관원들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사절을 계속 파견했다. 홍타이지의 뜻이 담긴 서신을 지니고 사절의 임무를 수행한 자들에는 라마승과 함께 후금의 군대에 사로잡힌 한인도 존재했다. 포로로 잡힌 한인을 사절로 파견한 목적은 명군에게 과거의 패배를 떠올리게 해서 심리적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만약 그들이 투항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며 능력에 맞는 충분한 대우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려는 속내였다.

그렇다면 후금에 투항한 한인 관원은 어떤 대우를 받으며 그들의 경력이 이어졌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자료는 《清太宗實錄》을 포함해 《滿文老檔》과 《內國史院檔》 등의 사료에 다수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에 걸쳐 만주어로 기록된 자료인 《滿文老檔》에는 한인 관원이 투항한 경위와 그들에게 내려진 각종 관직 및 승진시킨 이유가 다수 기록되어 있어 귀순한 한인 관원을 후금에서 어떻게 관리했는지 알려주고 있다.<sup>14</sup>

〈표 1〉 천총 연간 한인 대신들과 관원들에게 내린 勅

연번	성명	귀순 전 직위	후금에서의 직위	비고
1	tung yang sing[修養性]	상인	副將 → 總兵官	革職 X 贖 O
2	aita[劉興祚]	평민	備禦官 → 遊擊 → 副將	革職 X 贖 O

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거대한 틀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노기식, 2002,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조직화와 통제」, 『明清史研究』 16, 68-70쪽 참조.

14 『滿文老檔』이 지니는 사료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김선민, 2012, 「『舊滿洲檔』에서 『滿洲實錄』까지」, 『史叢』 77; 김두현, 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 淸史研究」, 『明清史研究』 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연구회, 2017, 『만문노당 역주』 1, 소명출판, iii-x(이하 『만문노당 역주』 약칭); 김두현, 2020, 『(새로읽은) 滿文老檔과 舊滿洲檔 對照表』, UUP 등 참조.

3	tung yan[佟延]	평민	備禦官 → 參將	革職 X 贖 O
4	lio dai jung	參將	遊擊 → 參將	
5	jao i ho[趙一鶴]	遊擊의 中軍	官員 → 遊擊	革職 X 贖 O
6	ma zu lin	軍門의 旗鼓	遊擊	
7	yang geng		遊擊	
8	lii sao u	參將	遊擊	
9	lii dai ceng	遊擊	遊擊	
10	yang da io	千總	遊擊	
11	u yen	遊擊의 中軍	遊擊	
12	ju ši cang[祝世昌]	遊擊	遊擊	
13	tung ceng jiyoo	通事	千總 → 都司 → 遊擊	
14	gu šeo tung	總兵官의 中軍	遊擊 → 參將	
15	lii ing jiyee	備禦官	遊擊	
16	lii guwe cen		備禦官 → 遊擊	
17	jang meng jao		遊擊	
18	lii gi hiyo[李繼學]	상인	大都司	革職 X 贖 O
19	jang hing guwe	守堡	備禦官	
20	yang ming ši[楊名世]	평민	備禦官(旗鼓)	
21	jao ši hing	秀才	備禦官(旗鼓)	
22	yeng ting lu[殷廷輅]	秀才	備禦官	
23	liyang dzung ioi	守堡	備禦官	
24	wang i wei	守堡	備禦官	
25	u ioi[吳裕]	평민	把總 → 備禦官	
26	wang yuwan giyo	평민	備禦官	
27	tung ceng niyan	평민	備禦官	革職 X 贖 O
28	g'o šao gi	평민	備禦官(旗鼓)	
29	sung ši yao	中軍	備禦官	
30	ma yuwan gung	總兵官의 旗鼓	備禦官(旗鼓)	
31	ma yuwan lung	상인	旗鼓	
32	ts'oo se yang	外郎	備禦官	
33	sioi wen	守備	備禦官	
34	ning yen	百戶	千總 → 備禦官	
35	lioyuwan cing	都堂의 旗鼓	旗鼓	

36	yen ting lu[殷廷轄]		備禦官	
37	yang wan bang	掌印官	備禦官	
38	wang ioi ji	管屯	備禦官	
39	ju deng k'o	外郎(吏員)	備禦官	
40	ts'ui dai jung	通事	備禦官	
41	g'ao yung fu	守堡	備禦官	
42	lii si sin	經略의 旗鼓	備禦官(旗鼓)	
43	wang si ping	指揮	備禦官(旗鼓)	
44	wang giya yan	中軍	備禦官	
45	je šeo i	外郎	備禦官	
46	dazng guwe dzo[藏國祚]	평민	備禦官	
47	cen wan wei		備禦官	革職 X
48	sung wen yuyan	秀才	千總 → 備禦官	
49	tung jeng[佟整]	상인	備禦官	
50	g'ao ti ming[高題名]		備禦官	革職 X 贖 O
51	ioi ceng gung	千總	備禦官	
52	wang dz deng[王子登]	衛官	備禦官	
53	ma ceng lung	守堡	備禦官	
54	han tian ho	指揮	守堡 → 備禦官	
55	yang wan bang	掌印官	備禦官 → 遊擊	
56	wang dz deng[王子登]	衛官	備禦官 → 遊擊 → 參將	革職 X 贖 O

\* 본 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 2017, 『만문노당 역주』 1, 소명출판, 324-348쪽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함.

\*\* 인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주어 전사를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성명의 한자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추가로 기재하였다. 참고로 중문으로 번역된 『滿文老檔』에는 한자로 음차한 성명이 적혀있으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기재하지 않았다.

\*\*\* 비교에 기재된 '革職'과 '贖'은 각 인물에게 내려진 勅의 내용 중에서 확인된 경우만 별도로 표기하였다. 홍타이지가 향후 자손 대대로 관직을 혁직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X'로, 죄를 지어도 재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경우는 'O'로 나타냈다.

위의 <표 1>은 명확한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천총 원년~3년 사이에 홍타이지가 한인 관원들에게 내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勅들만 따로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표이다. <표 1>에 따르면 홍타이지는 56회에 걸쳐

한인 관원들에게 勅을 내려주었다. 동일 인물에게 勅이 내려진 사실을 참작하면 총 54명에게 내려준 勅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각 자료에는 먼저 勅을 받는 관원의 이름을 적고, 그가 후금으로 투항하기 직전 명에서의 지위를 기록했다. 이어 투항한 계기가 되는 사건을 간략하게 열거하고 勅을 내려준 시점을 기준으로 후금에서 담당했던 관직을 순서대로 적고 최종적으로 맡을 지위를 기록하였다.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그들이 쌓은 공적을 기준으로 해당 인물이 죄를 지었을 때 ‘贖’의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권리와 내려준 ‘職’에 대해 자손 대대로 革職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勅을 받은 인원 중에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명에서의 직위가 기록된 자는 46명이다. 반면 아버지와 형 등의 직위가 언급되지만, 막상 勅을 받을 당사자의 과거 경력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6명이 존재했다. 이들이 후금에 귀순하기 전의 지위는 평범한 백성 또는 상인에서부터 遊擊·參將·千總 등 변경의 지휘관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었다. 귀순한 이후에는 과거의 신분과 상관없이 후금에서 쌓은 공적에 따라 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표 1>에 기재된 王子登이 받은 勅의 내용은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사료 A-1]

한이 말하기를, 왕자등, 너는 원래 철을 제련하는 것을 감독하는 衛官이었다. 내가 요동을 얻은 후, 승진시켜 비어관 직을 주었다. 기쁜 은혜를 생각하여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정직하게 진력하고 힘쓰라.<sup>15</sup>

## [사료 A-2]

한이 말하기를, 왕자등, 너는 원래 철을 제련하는 衛官이었다. 요동을 얻은

15 『만문노당 역주』 1, 345쪽.

후, 등용하여 비서관 직을 주었다. be giya jai의 사람들이 배반하여 가는 것을 추격하여 붙잡았다. 또 모문룡이 사주하려고 글을 쥐여주어 보낸 사람을 붙잡았다 하여 승진시켜 유격 직을 주었다. 愛河의 땅에 곡식을 가지러 가서 kuül ting 지역의 사람이 배반하여 가는 것을 흔적을 보고 추격하여 죽였다. 모문룡이 사주하려고 보내서, (이들을) 데려가려는 천총을 죽였다 하여 승진시켜 참장 직을 주었다. 그 공으로 왕자등을 실수하고 잘못하여 죄를 지으면 법으로 처벌할 贖을 취한다. 이 職을 자손 대대로 革職하지 않는다.<sup>16</sup>

[사료 A-1·2]에 의하면 왕자등은 원래 철을 제련하는 관원이었다. 하지만 후금이 요동 지역을 점거하자 투항해서 해당 지역의 백성이 이탈하는 것을 막고, 모문룡이 파견한 자를 사로잡는 등 출중한 활약을 펼치면서 거듭 승진하였다. 계속되는 활약의 대가로 개인의 관직 상승과 함께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贖으로 대체할 기회를 얻었으며, 자손 대대로 革職하지 않겠다는 홍타이지의 약속도 받아들였다.

왕자등처럼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약속받은 자도 있었지만, 친지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이 보상받은 사례도 있었다. <표 1>의 통청니안 [tung ceng niyan], 천왕웨이 [cen wang wei], 高題名은 모두 홍타이지가 내린 勅을 통해 왕자등과 같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다. 다만, 그들은 부친이나 형이 鎮江의 관원으로 파견된 이후 해당 지역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죽임을 당해 위로의 차원에서 상이 내려진 점이 달랐다.<sup>17</sup> 이처럼 홍타이지는 투항한 한인 관원들에게 명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고, 개인의 활약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했다.

이후에도 한인 관원에 대한 회유와 우대는 계속되었다. 홍타이지는 차하르의 립단 한이 몽골의 통일을 시도하자 이에 반발해 후금에 의탁한 코르친 등의 몽골 세력을 이용해 명의 내지로 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反립단'이라는

16 『만문노당 역주』 1, 347-348쪽.

17 『만문노당 역주』 1, 335-336·343·344-345쪽.

명분을 통해 滿·蒙의 연합을 도모한 흥타이지는 북경을 포위하고 遵化·永平·瀾州·遷安 등의 지역을 점거해 직접 지배하고자 했다.<sup>18</sup> 후금의 군대가 명과의 전투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면서 투항하는 한인 관원의 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한인 관원의 투항이 이어지자 후금 내부에서도 그들이 투항한 순서와 어떤 형태를 거쳐 귀순했는지를 살펴 차등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경 근교 공략전에서 투항한 명의 관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滿文老檔》 등의 사료에서 확인되는데, 각 자료는 앞서 <표 1>과 마찬가지로 투항한 자의 이름과 명에서의 관직, 귀순한 계기가 되는 사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일부 관원에 대해서는 흥타이지가 직접 당부의 말이나 재물을 내려주기도 했으며, 간혹 白養粹의 경우처럼 개별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담겨있기도 했으나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다.<sup>19</sup>

하지만 당시까지 투항한 한인 관원에 대한 정책은 개별적인 사례에 불과했다. 후금의 지도부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원한 현실적인 목표는 백양졸의 사례에서 확인되는 ‘재능 있고 충직한 사람이 곧 그의 지역을 다스리면 지역민의 마음을 분명히 알 것’이란 문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후금의 군대가 점거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한인 관원이 필요했었다.<sup>20</sup>

이처럼 투항한 개별 인물에 대해 명에서의 관직을 부여하거나 귀순 이후 공적을 살펴 후손의 미래를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아닌 후금 지도부와 한인 관원의 구조적인 결합은 1631년(天聰 5)에 벌어진 大凌河 전역이 계기가 되었다.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면서 투항을 결정한 祖大壽는 과거 후금에 항복한 한인 관원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위 관직을 누리면서 요동 지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자였다. 따라서 흥타이지는 조대수와와의 만남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18 노기식, 2000, 「흥타이지의 반력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196쪽.

19 『만문노당 역주』 1, 460~461쪽.

20 『만문노당 역주』 1, 460~461쪽.

알현하겠다는 것을 일으켜 껴안으며 만나고, 직접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 자신의 왼편에 앉히는 등 정치적 결정이 반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sup>21</sup>

조대수의 투항을 계기로 변화는 시작되었다. 당시까지 元트를 비롯한 후금의 중요한 국가 의례에서 한인 관원은 참여할 자격조차 없었다. 그러나 조대수가 귀순한 이후 한인 관원에 대한 우대책의 하나로 기존의 한인 관원과 대릉하에서 투항한 한인 관원이 각종 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 이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된 1632년(天聰 6) 새해의 기록에 따르면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한인 관원을 이끌고 시 율리(修養性) 어푸와 대릉하의 관원이 등급에 따라 차례대로 叩頭한 것이며, 둘째는 팔기의 버일러들이 한을 향해 고두할 때 홍타이지가 홀로 남면해 앉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sup>22</sup>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후금의 조정에 수많은 한인 관원이 합류해 홍타이지의 권력을 뒷받침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다수의 한인 관원이 후금에 복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후금의 상층부와 묶어내는 작업도 요구되었다. 당시 兵部를 담당하던 요토 버일러는 대릉하에서 투항한 한인 관원을 위해 그들의 등급에 따라 '1등급의 관원에게는 버일러의 딸을 주고, 2등급의 관원에게는 나라의 버일러 및 암반들의 딸'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는 같이 항복한 군사를 위해 유능한 관원을 파견해 기존 한인들의 딸과 과부를 조사해 그들의 처로 주자는 내용도 포함된 건의였다.<sup>23</sup> 이 제안은 즉각 수용되어 후금의 지도부를 대표해 요토 버일러의 집안과 한인 관원을 대표하는 동양성의 집안이 서로 사돈을 맺었다. 그날 열린 잔치에서는 홍타이지를 포함한 여러 버일러가 참가하였고, 新·舊 한인 관원도 모두 참여한

21 김선민, 2017, 「접견례를 통해 본 아이신-다이칭 구문(Aisin-Daicing Gurun)의 세계」, 『韓國史學史學報』 36, 77쪽 참조.

22 『清太宗實錄』 卷11, 天聰 6년 正月 1일(己亥); 『만문노당 역주』 2, 998-1001쪽.

23 『清太宗實錄』 卷11, 天聰 6년 正月 15일(癸丑); 『만문노당 역주』 2, 1016-1020쪽.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었다.<sup>24</sup> 다음 날에는 동양성 휘하의 여러 漢軍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정렬해 紅衣砲를 쏘는 것을 흥타이지를 비롯한 여러 버일러·타이지·암반 등이 참가해 구경하였다. 포를 쏘는 것을 시찰한 이후에는 대령하에서 투항한 관원들에게 步射의 명령이 내려져 한인 관원들이 관장하는 부대의 사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sup>25</sup> 며칠 뒤 연무장에서는 앞서 한인 관원들이 준비한 내용과 대령하에서 싸운 내용이 좋다는 이유로 동양성을 포함한 여러 관원에게 상이 내려졌으며, 이를 뒤에는 반대로 동양성이 잔치를 마련해 대령하에서 투항한 새로운 관원들이 흥타이지와 다른 버일러를 향해 술을 올리도록 하면서 두 집단의 외형적 결합은 마무리되었다.<sup>26</sup>

위와 같이 급박하게 진행된 행사는 대외적으로 흥타이지의 자애로움을 선전하는 장이 되었다. 이후에도 대령하에서 투항한 관원들의 등급을 살펴 관직마다 일정 수의 구추와 함께 심양에 집을 마련해주고, 나머지 한인 관원과 병사들에게도 정착할 수 있도록 처를 구해주라는 흥타이지의 지시는 그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sup>27</sup> 이와 같은 조치는 새로운 한인 관원이 후금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요동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명백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후금의 지배를 거부하고 요동 지역을 벗어나려는 한인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자연히 그들을 관리·감독하도록 지시받은 한인 관원들은 매서운 질책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특히 대령하 지역의 한인들이 도주하자 흥타이지는 이들을 담당하고 있던 관원들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다.

24 『清太宗實錄』卷11, 天聰 6년 正月 21일(己未); 『만문노당 역주』 2, 1088-1090쪽.

25 『清太宗實錄』卷11, 天聰 6년 正月 22일(癸亥); 『만문노당 역주』 2, 1090-1091쪽.

26 『清太宗實錄』卷11, 天聰 6년 正月 25일(癸亥); 『만문노당 역주』 2, 1091-1096쪽.

27 『清太宗實錄』卷11, 天聰 6년 正月 27일(乙丑); 『만문노당 역주』 2, 1144쪽.

[사료 B]

군대가 도착한 후 大陵河에서 데려온 한인들이 도망치는 것이 많아서 한이 동양성 어부와 문관의 박사들을 데려와서 “대릉하에서 데려온 관원들에게 말하라. 너희를 3개월 간 포위해서 하늘이 나에게 준 후 내가 남보다 보살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데려와서 옷과 곡식, 처와 가산을 모두 주고 보살핀 것이다. 나의 군사가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에게 붙잡혔다면 그렇게 보살피기는 커녕 머리인들 그대로 두었겠는가? 별거승이를 기른 것은 너희의 아버지 어머니겠지만 옷을 입혀 기른 것은 나이니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인 것이다. 너희는 명의 땅에서 만 명, 천명을 관할했던 사람이다. 지금 너희에게 준 것은 기껏 해 봤자 40~50명, 20~30명씩일 뿐이다. 무엇이 많은가? 그들을 너희는 각자 사람을 잘 타이르고 수습하여 보살피지 않고 왜 도주하게 했는가?<sup>28</sup>

홍타이지는 [사료 B]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인 관원들에 대한 자신의 호의를 강조했다. 만약 자신이 아닌 다른 자에게 붙잡혔다면, 그들이 후금에서 누리던 지위와 재산 등은 고사하고 목숨마저 온전치 못했을 것이라 겁박했다. 또한, 그들을 기른 부모와 대등한 위치로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서 과거 명에서 담당했던 직무처럼 그들이 맡은 한인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발언은 후금이 한인 관원에게 기대했던 요동 지역 한인에 대한 통제력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향으로의 모색은 1633~1634년(天聰 7·8)에 걸쳐 이루어진 孔有德 등의 투항이 계기가 되었다. 모문룡의 죽음 이후 가도의 잔여세력이 밝혀온 귀순 의사는 후금에서 한인 관원의 역할과 관리 방식을 다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홍타이지는 우선 그들의 투항을 대단히 반기면서 신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抱見禮를 통한 만남으로 환영의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sup>29</sup> 이는 과거 한인 관원들이 후금과의 전투에서 패배해

28 『清太宗實錄』卷11, 天聰 6년 8월 1일(丙寅); 『만문노당 역주』 2, 1328-1329쪽.

29 김선민, 2017, 앞의 논문, 『國史學史學報』 36, 77~78쪽 참조.

투항한 것과 달리 일정 수준 이상의 군사적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세력이 스스로 합류한 것에 대한 기쁨과 우대의 표시이기도 했다.

1634년(天聰 8) 정월, 홍타이지는 공유덕과 경증명에게 팔기의 호쇼이 버일러와 같은 반열에서 新年的 禮를 표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이 고두하기를 마치자 자신의 양 측면에 앉도록 명령했다.<sup>30</sup> 계속된 의례에서 기존 후금의 관원 및 몽골의 버일러가 순서대로 예를 표했으나 별도의 지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과 같은 한인으로 먼저 투항해 당시 한인 구사의 여러 관원을 이끌던 石廷柱의 위치와 비교해도 그 순서와 대우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다. 즉, 기존 한인 관원에 대한 정책과 별개로 공유덕 등에게 후금 내부에서 일정한 지위를 인정해주면서 나름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 방식은 이전 모습과 분명 차이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송덕’의 시기로 들어선 1638년(崇德 3) 沈志祥이 항복한 사례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렇다고 후금에 복무하던 기존 한인 관원들을 내친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八旗漢軍의 조직이 완비된 것은 1641년(崇德 7)의 일이었지만, 그 모체는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sup>31</sup> 일찍이 누르하치 시기부터 동양성과 이영방 등은 그들의 관리를 맡고 있었으며, 뒤를 이은 홍타이지도 늘어난 한인 관원의 수만큼 한인으로 구성된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1634년(天聰 8) 5월, 한인 관원이 거느리던 군대가 漢兵[ujen coohal]로 명명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공유덕과 경증명의 군대는 天祐兵[abkai aisilah coohal·天助兵[abaki nonggiha coohal]으로 각각 부르도록 지시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한인 관원에 대한 관리방식이 이중으로 구성된 이유는 누르하치 시기 여진인과 한인의 동거가 실패로 돌아간 경험이 반영된 것이었다. 과거의 실패

30 『清太宗實錄』卷17, 天聰 8년 正月 1일(戊子):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의綜合的研究チーム, 2009, 『內國史院檔: 天聰 8年』, 東洋文庫, 1-5쪽.

31 八旗漢軍의 기원과 구성에 대해서는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135-140쪽;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에·김선민 옮김,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489~491쪽 참조.

를 반복할 이유가 없었던 홍타이지는 공유덕 등 일정 규모를 갖춘 집단의 조직력을 통해 그들에게 소속된 한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동시에 이미 개별적으로 귀순해 후금에 복무하던 기존 한인 관원들에게는 차츰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팔기한군의 구성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홍타이지는 출신을 가리지 않는 대범한 군주의 모습을 연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도구로써 그들을 활용하였다.

### Ⅲ. ‘上言’에 대한 홍타이지의 이중성

홍타이지의 집권 이후 추진된 정책은 후금의 한인 관원을 증가시켰다. 늘어난 한인 관원의 수만큼 그들의 출신과 역할도 조금씩 다양해지면서 누르하지 말년의 극도로 위축된 상태를 벗어나 점차 활동의 폭을 넓혀나갔다. 당시 후금의 변화는 ‘參漢酌滿’이란 표현으로 지칭되는데, 이는 그간 여진의 전통과 관습을 기반으로 운영되던 국가 시스템에 명의 제도가 조금씩 이식되기 시작했음을 알려주고 있다.<sup>32</sup>

후금의 변화는 한인 관원의 상言과 함께 진행되었다. 홍타이지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한인 관원의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관직, 재산 등을 보장해준 새로운 주인을 위해 南朝(明)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명에 대한 군사적 강경책 및 유능한 인재 등용의 필요성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sup>33</sup> 한인 관원의 상언을 기반으로 추진된 후금의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추진된 변화는 홍타이지의 결심에 따라 그 속도가 조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먼저 홍타이지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은 한인 관원의 지적부터 살펴보자. 『淸史稿』에 수록된 沈文奎(王文奎)의 열전에는 그의 일생에 대한 기

32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4, 吉林文史出版社, 1197-1198쪽.

33 天聰年間 후금에서 진행된 명나라 제도의 모방에 대해서는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 2013, 앞의 책, 400-426쪽 참조.

록과 함께 文官에 배속되어 있던 여러 한인 관원들의 행적도 수록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胡賁明에 대한 기록은 그가 올린 상소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끄는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중국 황제의 모습이 익숙한 그에게 후금의 한인 흥타이지가 가진 권력은 허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호공명은 다음과 같이 문제의 근원을 짚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사료 C]

태조의 시기에 나라를 처음으로 세워 토지, 인민, 재물을 모두 버일러와 균등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관습을 숭상하고 따르니 상께서 겉으로는 비록 나라를 가지셨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정황기의 한 버일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땅도 상과 버일러가 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열 마리의 양에 목자는 아홉이니, 즉 증원을 차지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군대가 출정하여 재물을 얻으면 마땅히 셋은 상께 속하고 (나머지) 일곱을 여러 버일러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sup>34</sup>

[사료 C]의 기사는 한인 관원의 눈에 비친 후금의 현실을 보여준다. 호공명이 그간 경험한 후금은 아직도 舊習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가였다. 그가 지적한 다른 세력과의 전쟁을 통해 얻은 재물과 포로 등을 수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지배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는 흥노 제국의 형성 이후 북방민족 군주의 오랜 전통이었다.<sup>35</sup> 누르하치 역시 후금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펼치면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후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흥타이지는 과거의 성공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확립해야 했다.

호공명이 내놓은 방책은 후금의 군대가 출정해 얻은 전리품에 대한 분배방

34 『清史稿』卷239 列傳 26 沈文奎.

35 흥노 제국의 선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토마스 바펠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113-119쪽 참조.

식의 변경이었다. 과거처럼 팔기의 각 버일러가 모든 재물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닌 후금의 한인 홍타이지가 먼저 전체의 3할을 선점한 뒤에, 나머지 7할을 대상으로 다른 버일러에게 배분하자는 주장이었다. 만약 기존의 분배방식을 변경한다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수록 홍타이지가 거느린 旗와 그 세력이 다른 버일러가 거느린 기보다 강력한 힘을 갖추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홍타이지는 疏를 살펴보고는 그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면서 이후 군대가 출정하면 그의 제안을 따르겠다고 동의하였다.<sup>36</sup>

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은 계속되었다. 1631년 7월 홍타이지는 寧完我 등이 건의한 六部의 설치를 허가했다. 육부의 구성원은 3년에 1번 고과를 평가받아 승진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그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혈연에 기반한 사적 관계에 의지하기보다는 결정권자인 홍타이지의 눈에 띄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더구나 각 부에 여진 출신 관원뿐만 아니라 한인 관원들도 임명되어 주요 실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홍타이지를 대신해 감시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와 궤를 같이해 言官의 설치와 服制의 제정도 진행되면서 명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가 순차적으로 후금에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후금의 한인 관원들은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다.<sup>37</sup>

명과의 전쟁에서도 한인 관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명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서 외면받던 홍타이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전선을 마주한 변경의 관원들에게 화친을 요구하는 서신을 거듭 보냈다. 그 글에는 후금이 점거한 요동 지역의 권리를 명이 인정해주면 양국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아 평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물론 이는 외교적 수사에 불과했다. 양국을 오간 수많은 서신의 글과 달리 후금의 진심은 寧完我·范文程·馬國柱 등이 공동으로 올렸던 다음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D]

36 『清史稿』卷239 列傳 26 沈文奎.

37 이훈, 2018,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167-168쪽.

…… 한이 진격하려는 뜻이 있는데 명제가 실추될까 봐 우려되고 구실 없이 어찌 진격하겠는가 하면,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두 계책이 있습니다. 두 계책은 공개적인 한 계책과 틈을 찾는 한 계책입니다. 공개적인 계책이라는 것은, 우리 길의 연변에 들르는 성의 백성들에게 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차하르 한을 멀리 쫓아냈고, 거주하는 바이싱의 백성을 모두 다 취했다. 항복한 백성을 도보로 데려가면 거리가 멀어 도착하지 못하므로, 여기에 들러 명 황제와 화친한 것을 논하고자 왔다. 너희의 말과 노새와 나귀를 우리에게 빌려주어라. 항복한 백성에게 타게 하여 데려가겠다. 너희의 황제와 화친했을 때, 너희의 말과 노새를 모두 배상하겠다. 내가 늘 화친하고자 하는데 너희의 황제는 할 수 없다고 하니, 내가 정벌하고 하늘이 자애하시어 이 땅이 나의 것으로 될 때 너희 이 힘든 일대의 백성의 부역을 면제해주어 몇 년을 자애하여 보살피겠다.” 이것이 한 계책입니다. 누구든 이 말이 심히 하늘을 능멸했다고 말한다면, 하늘은 치우치지 않아서 다만 덕이 있고 좋은 사람을 하늘이 도우며 높입니다. 萬善을 바르게 하고 여러 백성을 자애하여 보살피게 되면, 매일 한이 주둔하겠다고 말한다고 해도 하늘이 그르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부합하는 좋은 마음이 없다면 한이 주둔하겠다는 말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늘이 그것을 돕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구실을 찾는 계책이라는 것은, 글을 지어서 경계의 가까운 관원들에게 상의하여 화친하라고 속히 날을 약정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내지의 관원들은 혼란스럽고, 변경의 관원들 또한 확실히 화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우리는 지체시키고 속일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서 진격하면 우리의 뜻대로입니다.<sup>38</sup>

[사료 D]는 후금의 한인 관원이 명을 상대로 시행하자고 제의한 두 가지 계책이 담겨있다. 그들이 언급한 첫 번째 방법은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선동이였다. 후금의 군대가 앞으로 지나갈 길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자신

38 『만문노당 역주』 2, 1243-1245쪽.

들은 명의 황제와 화친을 맺기 위해 가는 길이라 목소리를 높이면서,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해 변경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북경의 황제라는 논리를 퍼트리려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일반 백성이 아닌 명나라 변경의 관원이 목표였다. 그들에게 화친을 원한다는 홍타이지의 서신이 계속 전해지면 이를 북경에 보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지 결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명의 관원들은 당혹스러워할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구실로 삼아 후금의 군대가 진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위와 같은 명나라 변경의 백성과 관원을 향한 선전과 기만은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 후금의 처지에서 혹시라도 명과의 화친이 성사되면 그들이 원했던 요동 지역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손해를 보는 제안은 아니었다. 반대로 북경의 황제나 변경의 관원이 화친을 요구하는 서신을 거부할지라도 영완아 등의 한인 관원이 지적한 것처럼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실제로 화친을 요구하는 서신이 명의 관원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충돌이 반복되고 있었다.

후금의 한인 관원들은 홍타이지에게 주어진 天命을 외면하지 말고 산해관을 넘어 북경으로 향하자고 거듭 부추겼다. 홍타이지는 명과의 화의 또는 전쟁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인 관원들의 의견을 자주 물었는데, 그중에서 王文奎·孫應時·江雲만을 별도로 불러 각자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홍타이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의견을 담은 상주문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사료 E-1]

화친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또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해도 명나라의 사람은 송나라의 궤적을 거울로 삼아서 국인이 모두 화친한다는 말을 경계할 것입니다. …(중략)… 화친하고자 하면 화친을 결정하십시오. 화친하는 일은 한마디 말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화친하지 않는다면 공격을 결정하십시오. 공격하는 일은 (한마디로) 모두 말할 수 있습니다. 한의 강령한 군대를 이끌고 중국이 어지러운 때에 들어간다면 황하의 북쪽은 명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임

니다. 한은 숙고하십시오.<sup>39</sup>

[사료 E-2]

양국의 화친한 일을 제 뜻대로 헤아리건대, 명나라의 황제는 땅이 넓고 힘이 무엇이든 많으며 제도가 엄격함에 의지해 결코 가벼이 화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래의 대신들도 두려워서 화친하자는 한 글자로 가볍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의 대군이 경계로 가까이 갔을 때 그 일을 맡은 대신이 어떤 물건도 굳게 지키고 정돈할 여유가 없었으므로 우리가 진격하는 것을 지체시키고자 속인 것입니다. …(중략)… 이 화친은 쉽게 끝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화친이라는 것은 양국에 큰 이익입니다. 화친하지 않으면 그의 고통 또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원한을 품은 것도 더욱 깊어질 것이니 아마도 명분 양국 並立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살찌우고 무기를 갖추고 진격할 뿐입니다. 후퇴할 수 없습니다. 이것뿐 다른 계책은 없습니다. 한께서 숙고하십시오.<sup>40</sup>

[사료 E-3]

제가 헤아리건대 화친하는 일은 10분에 7분이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양국이 화친하여 천시를 살피며 우호적으로 산다면 명나라에게 행운일 것입니다. 만약 명나라가 때를 헤아리지 않고 화친을 태만하게 하여 그 후에 우리 군대가 진격해 공격하고 취하게 된다면 명분 또한 좋습니다. 명나라의 대신들과 백성들도 옳지 않다 할 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한께서 명을 향해 화친하자 하신 것은 양보하고 물러나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가 공격하면 또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취하면 또한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천하에 횡과 종으로 다니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명이 화친한다고 하면 우리도 화친하십시오. 안된다고 하면 하늘이 한에게 천하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속히 신의를 선포하는 것을 현자에게 맡기시어 군대를 정돈해 진격하면 천하를 날을 정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39 『만문노당 역주』 2, 1332-1335쪽.

40 『만문노당 역주』 2, 1335-1336쪽.

반드시 화친을 탐하십니까?<sup>41</sup>

홍타이지의 질문을 받은 3명의 한인 관원은 모두 명과의 전쟁을 선택했다. 왕문규(E-1)는 명과 화친을 도모하고 싶어도 그들이 宋代의 일을 거울로 삼아 경계하고 있으므로 성사되기 어렵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차라리 기회를 노려 명을 공격하는 선택이 바람직하며 황하 이북의 땅을 차지하는 일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과장된 주장을 펼쳤다. 손운시(E-2)도 화친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는 과거 명의 관원이 후금의 화친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은 그들이 당면한 군사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간계로 홍타이지의 눈을 잠시 속인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화친이 성사되면서 양국에 큰 이익이 되겠지만, 화친할 수 없다면 양국은 병립할 수 없으니 군비를 갖추어 진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강운(E-3) 역시 명과의 화친에 대해 7할 이상의 확률로 달성되기 어려우니 빨리 군대를 정비해 공격한다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진언했다.

후금의 대다수 한인 관원은 명에 대한 군사적 강경책을 선호했다. 명의 수도인 북경을 굳게 지키는 관문인 산해관을 공격하자거나, 아니면 바다를 건너 山東을 도모하자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후금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 반복되자 홍타이지는 한인 관원들이 다른 사람의 고충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sup>42</sup> 그러나 후금에 투항한 한인 관원의 입장에서 자신의 충성심과 효용성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직위나 재물 등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명과 관련된 사안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했다.

동시에 한인 관원들이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끼리 서로의 잘못을 눈감아

41 『만문노당 역주』 2, 1336-1339쪽.

42 홍타이지 시기 중원 공략에 대한 만주 관원 및 한인 관원이 제출한 의견과 논의에 대해서 는 박민수, 2018,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軍史』 107 참조.

주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료를 고발하는 일도 빈번했다. 후금의 변화를 주도한 대표적인 한인 관원인 영완아도 1631년(天聰 5년) 12월 禮部參政 李伯龍에 의한 탄핵을 피하지 못했고<sup>43</sup>, 가도의 잔당을 이끌고 귀순한 공유덕이 함께 투항한 경증명을 고발했던 다음 사례도 후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인 관원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료 F]

그 날, 도원수 공유덕이 한에게 올린 글의 말.

도원수 공유덕은 (경증명) 총병관이 공정하지 못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고, 또한 저의 공정함과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상주하였습니다. 저는 경증명과 함께 (귀순해)온 후에 한이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로 나라의 첫 번째 등급 공신과 같이 되었습니다. 한은 항상 마음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쳤으나, 가르친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르치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흉악한 경증명은 관원들을 침탈하고 병사들을 비방해 사람의 뇌와 골수를 빨기 때문에 관원병사 모두 하늘에 이르도록 원망합니다. 많은 관원병사가 저에게 소송을 제기한 나쁜 사건의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고발해 온 문서에 갖가지 명백함이 있습니다. 이 흉악한 경증명은 두렵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 저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의 말씀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귀순해)온 이래 친구의 도리를 생각해 숨기고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후시라도 흉악함이 점점 심해져서 제가 미리 알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커다란 일을 그르치게 되었을 때 죄는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은 淸州에 있었을 때처럼 홀로 장악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께서 사람을 기르시는 좋은 마음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온 관원병사의 본래 뜻도 배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리가 모두 원망해 꿀벌과 같이 떠돌고 있습니다. 궁지에 빠져 도망친 몇백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淸州에서 겨를 먹으며 8달

43 『清太宗實錄』卷10, 天聰 5年 12月 28日(丙申).

남짓 포위당해도 한 사람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욕할 뿐만 아니라 곡물을 주고 기르는데 오히려 도망치는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제가 감추고자 해도 끝까지 숨기지 못하고 전부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한께서 진실된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셔서 관원병사의 근심하는 바를 면하게 해주실 때 제가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써 노력하려는 본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총병관 직위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나의 입으로 얻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한의 은혜로 官印과 勅書를 얻었는데 근본을 잊어버리고 개와 말처럼 보답하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행동해 나라의 도리를 파괴하니 제가 일찍부터 크게 원망해서 나는 듯이 가서 저의 마음을 한께 상주하고자 하나 칙지가 없어서 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서 상주하고자 합니다.<sup>44</sup>

[사료 F]는 공유덕이 홍타이지를 향해 경증명을 고발하면서 자신과 무관한 일임을 강조한 글이다. 상주문에 따르면 경증명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자들은 공유덕에게 그를 고발했으며, 일부는 후금에서 양식을 마련해 생계를 꾸리도록 조치해주었음에도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공유덕은 자신은 후금에 귀순한 이래 한의 은혜에 감복해 있는 힘껏 나라를 위해 힘쓰고자 하나 경증명이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책임 소재에 있어 명확한 선을 그었다.

홍타이지는 상주문을 읽고 두 사람을 모두 심양으로 소환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각기 별도의 諭旨를 내리고 궁으로 불러 연회를 베풀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공유덕에게 내린 글에는 그가 나라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 다른 의도가 없이 이런 상주문을 올렸느냐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진 않았다. 경증명한테도 그를 고발한 수하의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으므로 공유덕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이에 대한 원한을 갖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불만을 지닌다면 나라에

44 『清太宗實錄』卷17, 天聰 8年 2月 10日(丁卯);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의 綜合的研究 子-ム, 2009, 『內國史院檔 : 天聰 8年』, 東洋文庫, 66-69쪽.

충성을 다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sup>45</sup>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두 장수가 후금이 항복한 이래 수하 인원에 대한 일종의 주도권 다툼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홍타이지는 공유덕과 경증명이 서로 간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홍타이지의 이런 태도는 다른 한인 관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공유덕의 고발 사건 이전에도 한인 관원들은 戶部를 통해 자신들에게 부과된 公課 [alban]가 과중하니 줄여달라고 요청했었다. 한인 관원들의 집단 행동에 홍타이지는 후금이 요동 지역을 점거한 이후 한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불평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관원을 소집해 그의 생각을 솔직하게 전했다. 그는 후금에서 한인 관원들이 얻은 여러 재물과 가축, 관직 등은 자신의 자애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강조하고 만주의 관원들이 전쟁터 등에서 쌓은 공적과 비교해보면 무슨 노력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도 탐욕만이 가득하다고 힐난하면서 한인 관원들은 나라를 위해 어떤 노력을 보여주었는지 말해보라고 크게 꾸짖었다.<sup>46</sup>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만을 논한 것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만주의 세계를 강조하고 유지하려는 홍타이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47</sup>

즉, 홍타이지는 한인 관원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과 별개로 후금의 핵심 이익에 반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았다. 국정의 폐단을 논하고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자 그들의 주장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先代의 일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등은 칭기즈칸의 아들인 차가타이의 사례를 들면서 철저히 금지시

45 『清太宗實錄』卷17, 天聰 8年 2月 14日(辛未);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綜合的研究チーム, 2009, 앞의 책, 77-78쪽.

46 『清太宗實錄』卷17, 天聰 8年 正月 16日(癸卯);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綜合的研究チーム, 2009, 위의 책, 21-26쪽.

47 谷井陽子, 2011, 「清入關前漢人官僚對其政治的影響」, 『清代滿漢關係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50-51쪽.

켰다.<sup>48</sup> 오히려 북방민족 국가의 흥성이 두드러졌던 遼·金·元 시기의 사례를 들어 후금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정당성을 논증한 수많은 사례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sup>49</sup>

따라서 북방민족 왕조의 계몽된 군주가 유능한 한인 신하의 보좌를 받아 내부의 개혁을 단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기존 서사는 최소한 홍타이지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북방민족의 강렬한 자의식이 굳게 선 상태에서 후금에 귀순한 한인 관원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부분적으로 허락해준 것으로 인식해야 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홍타이지의 심중에 달려있었다. 만약 한인 관원들이 二等民族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정해진 한계선을 넘고자 시도하는 순간 홍타이지의 엄중한 경고에 직면한 사실을 이를 입증해준다. 동시에 한인 관원들에게 그간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구명 받은 목숨의 대가로 후금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 IV. 맺음말

후금을 건국한 누르하치는 사르후 전투를 거쳐 요동 지역을 새로운 기반으로 삼았다. 그가 사망한 이후 홍타이지는 후금의 새로운 한으로 즉위하였으나 누르하치와 같은 견고한 권력은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를 위협하는 내부의 권력투쟁,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명과의 전쟁 등은 후금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후금의 새로운 터전이었던 요동 지역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과거 명에서 복무한 한인 관원 및 수재 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홍타이지는 즉위식을 마친 후 바로 한인 관원에 대한 회유에 들어갔다. 그

48 『만문노당』 2, 1104-1106쪽.

49 『만문노당』 1, 372-376·442-446쪽.

들을 괴롭히던 각종 조치를 모두 금지시켰으며, 후금에 귀순한 자들에게 과거 명에서의 지위와 투항한 이후의 공적을 살펴 적절한 관직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특출난 공을 세운 자에게는 실수로 죄를 짓더라고贖을 통해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하거나 수여한 관직을 자손 대대로 革職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아끼지 않았다. 대릉하 전역 이후 대거 합류한 한인 관원을 위해서 후금의 국가 의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수정했으며, 요토 버일러와 동양성 가문의 혼인을 통해 滿·漢의 결합도 시도하였다. 공유덕 등 나름의 세력을 갖춘 자들이 투항하면 그들만으로 이루어진 별도 조직의 활동을 인정해주었으며, 후금의 늘어난 한인 관원의 수를 바탕으로 八旗漢軍의 모체도 정비해 나갔다. 이러한 모든 조치의 최종 목표는 한인 관원의 힘을 빌려 요동 지역 한인의 이탈을 단속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분명 흥타이지는 후금에 투항한 한인 관원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을 펼쳐 주었다. 하지만 항상 관대한 모습으로 일관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올린 上言 중에서 합리적이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은 채택하였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북경 공략이나 후금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려는 주장이 제기되면 흥타이지의 매서운 비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한인 관원의 목숨을 구명해준 것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요구했다. 즉, 흥타이지는 북방민족 군주로서 표면적으로는 滿·漢의 일체를 강조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등민족임을 끊임없이 별도의 세력을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북방민족 왕조의 계몽된 군주가 유능한 한인 신하의 보좌를 받아 내부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문명의 길로 들어선다는 기존 서사는 최소한 흥타이지의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清太祖實錄』, 『清太宗實錄』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2003, 『內國史院檔：天聰七年』,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의 綜合的研究チーム, 2009, 『內國史院檔：天聰 8年』, 東洋  
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  
명출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연구회, 2017, 『만문노당 역주』 1·2, 소명출판  
김주원 외 역주, 2019, 『만문노당(태조)』,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 저서 및 논문

유소맹 지음, 이훈·이선애·김선민 옮김,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마크 C. 엘리엇 지음, 이훈·김선민 옮김,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김두현, 2020, 『(새로읽은) 滿文老檔과 舊滿洲檔 對照表』, UUP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이훈, 2018, 『만주족 이야기』, 너머북스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政治史研究室 編, 2011, 『清代滿漢關係研究』, 社會科學文  
獻出版社

孫靜, 2017, 『清代八旗漢軍研究』, 民族出版社

최갑순, 1978, 『『貳臣傳』編纂始末과 그 背景』, 『西原大學 論文集』 7

나종일, 1982, 「17世紀 危機論과 韓國史」, 『歷史學報』 74·75

김두현, 1987, 「요동지배기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노기식, 2000, 「홍타이지의 反棘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중국학논총』 13

노기식, 2004, 「明代 몽골과 만주의 交替」, 『사총』 59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송미령, 2008, 「天聰年間(1627-1636年) 支配體制의 確立過程과 朝鮮政策」, 『중국사학

회』 54

- 김문기, 2010, 「17세기 中國과 朝鮮의 小氷期 氣候變動」, 『역사와 경계』 77
- 김선민, 2011, 「‘신청사’의 등장과 분기」, 『내일을 여는 역사』 45.
- 정병진, 2012, 「入關前 淸의 朝鮮에 대한 ‘三色人’ 刷還要求」, 『明清史研究』 38
- 김선민, 2013, 「신청사와 만주학」, 『만주연구』 16
- 김문기, 2014, 「明末淸初의 荒政과 王朝交替」, 『中國史研究』 89
- 조영현, 2014, 「17세기 위기론’과 중국의 사회 변화」, 『역사비평』 107
- 윤 우, 2015, 「新淸史와 앞으로의 과제」, 『역사와 세계』 47
- 김형중, 2016, 「최근의 명청대 한·관계사 연구와 ‘신청사」, 『동북아역사논총』 53
- 기세찬, 2017, 「신청사 연구사 분석을 통한 담론의 함의」, 『군사연구』 144
- 김선민, 2017, 「접견례를 통해 본 아이신-다이칭 구룬(Aisin-Daicing Gurun)의 세계」, 『韓國史學史學報』 36
- 박민수, 2018,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中國 전략」, 『軍史』 107
- 정병진, 2019, 「누르하치 시기 貳臣의 출현과 역할」, 『인문과학연구』 61
- 박일현, 2020, 「順治 연간의 漢人 貳臣과 ‘滿漢一家’의 실상」, 『명청사연구』 52
- Meng Heng Lee, 2018, “Ukanju and the Changing Political Order of Northeastern Asia in the 17th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3-1
- 岡本 さえ, 1976, 「貳臣論」,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8
- 葉高樹, 1995, 「淸入關前統御漢官의 策略」, 『史耘』 第一期
- 杨银权, 2006, 「论降清汉族知识分子在清立国中的作用」, 西北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陈曦, 2012, 「“貳臣”建言与淸初治政研究」, 辽宁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 王秀英, 2012, 「从淸入关前后汉军贵族形成看统治阶级用人之策」, 『北方文物』 2012年 4期
- 张秀峰, 2013, 「淸入关前汉官群体研究问题」,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 辛宽, 2016, 「论淸太宗时期汉官群体的形成与作用」, 辽宁大学 硕士学位论文
- 包志怀, 2018, 「明末降后金武将群体研究」, 天津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투고일: 2020년 9월 15일, 심사완료일: 2020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2020년 10월 15일

■ Abstract ■

## Hongtaiji's Placation and Control of Chinese Officials in Early Part of Hongtaiji's Reign

Chong, Byung J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ngtaiji's ambivalence towards Han officials who had surrendered to the Later Jin. Having succeeded Khan to the throne, Hongtaiji actively appointed Han Chinese, recruited public officers based on these men's Ming Dynasty statuses, and considering the sum of reparations they paid. He also tried to unify the Manchu-Han, orchestrating marriages between Han officials and the Later Jin ruling classes. He would later manage the increasing number of Han officials systemically and based on the Eight Banners, reforming the government while strengthening his authority. However, he disregarded Han officials' pleas to engage in reckles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the Ming Dynasty and their criticism of the Jurchen people's traditions and customs. In essence, Hongtaiji became a symbolic ruler of the northern race and dealt with Han officials with a strong sense of identity. While past narratives focus on Han officials' roles in the carrying out of internal reforms, at least under Hongtaiji's reign these explanation is not suitable.

Keywords: Later Jin Dynasty, Early Part of Hongtaiji's Reign, Hongtaiji, Manchu-Han Relationship, The Han Officials, Erchen